

## 선한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10:11~21

###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 목회자가 저녁 집회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잠들어 있던 늦은 밤, 그는 피곤한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세탁기에서 세탁이 끝났다는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빨래를 널지 않았다고 해서 나무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여...!"라고 외치며, 피곤했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빨래를 너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 공간에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손에 주님이 손을 포개셔서 함께 빨래를 널어 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자신이 설교하면서 전했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일상의 작은 순종 속에 함께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나누어 보세요.

### 【배경 이해하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1~21절)과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장면(22~42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앞선 요한복음 7:14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며, 이는 10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즉 '선한 목자'의 가르침은 초막절 설교와 수전절 설교 사이에 위치해 초막절과 관계된 바리새인들, 수전절과 관계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참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이중적 기능을 합니다. 동시에 이 가르침은 유대 지도자들에 향한 예수님의 질타를 강화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도 암시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10:17)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참목자로 인해 양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10절).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샅꾼 목자들과 자신을 대조시킵니다.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 34장은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읽는 표준 낭독 본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 떼로, 하나님을 백성의 목자로 부르는 것은 구약에 흔히 나타나는 언약 신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 백성을 돌보도록 제사장과 왕들을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의 본래 목적과 본분을 잊고 양 떼를 속이고 노략질하며, 결국 흩어지게 만듭니다(겔 34장). 하나님

은 다윗의 몸에서 날 메시아를 통해 양 떼를 친히 모으고 돌보며 먹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샅꾼 목자는 양들이 자신 소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때 양을 돌보지 않고 버리고 달아납니다(12~13절).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며, 오히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10절).

## 적용과 나눔 I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가르침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반응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있는 사람은 남은 삶 동안 그 은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인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마련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망과 절망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 관찰과 묵상 II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14~15절 상반절)**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두 번째 선언과 연결된 특징은 선한 목자와 양 떼의 상호 인식입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샅꾼 목자와 달리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돌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상호 친밀한 삶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상호 신뢰 관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이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원동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벽한 상호 인식과 동역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양인 백성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양들과 완전한 연합을 지향합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에 응답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희망을 주실 것을 암시하십니다(16절).

## 적용과 나눔 II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 답변을 넘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깊고 친밀한 관계로 백성을 초대합니다. 구원은 단지 죽은 후 심판이 아닌 천국이 보장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져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17:3).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성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